

# 안철수·심상정·김동연 ‘제3지대’ 정치 미풍일까, 태풍일까

제3지대 후보들 거대 양당에 공세  
안철수, 출마 선언 후 양당 비판  
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저격  
김동연, 양당 기득권 타파 내세워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제3지대 후보들이 거대 양당에 균열을 내는 ‘정치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후보들이 ‘정치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가)새로운물결 후보를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까지 제3지대를 형성한 이들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의혹·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며 각각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연일 거대 양당과 후보들의 리스크를 공략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는 등 거대 양당 폐해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일 출마선

언을 발표하며 기득권 양당 정치에서 벗어난 ‘시대 교체’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전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는다”며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7년도 대선 때 내세운 새정치는 시대교체의 일부뿐이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꿔야 시대를 바꿀 수 있다”

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시대교체를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안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대선판이 감옥에 안 갈 후보를 찾는 이런 현실에 국민들이 안 대표를 내보냈고, 끝까지 가봐야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두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당의 대표주자인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치른다. 네 번째 대선 도전인 심 후보는 21대 총선 이후 하락한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쇠

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임을 뚜렷한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숙제를 꺼안았다. 이에 심 후보는 주4일제 근무를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는 신노동법 도입을 1호 공약으로 주장해왔다.

심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정의당 대선후보 전국위원회 인준 감사 인사에서 “국민들은 34년 양당정치가 보여 준 민낯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한다”며 “염치없는 양당정치는 또 최악의 선택을 강요하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

보의 ‘전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 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곳감 빼먹듯 하는 꼴단지 아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심상정 후보는 20년 간 국민 삶을 위한 정치한 길을 걸었다”며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국민들의 힘으로 온 후보이며 무엇보다 정책과 국가비전에 준비된, 확실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공식 사회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고 대선판에 등장한 ‘정치 신인’이다. 여야의 수많은 러브콜을 뿌리치고 양당 기득권 타파를 외친 그는 지난달 24일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1일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 양당 구조에선 정권교체든, 정권재창출이든 누가 돼도 기득권의 연장일 뿐”이라며 “현재 대선 후보들이 도덕성, 가족 문제 때문에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이재명 선대위’ 출범... 중도층 확장 집중

민주당, 대선체제로 공식 전환  
169명 의원 전원 참여 ‘매머드급’  
드림·원팀 통합 등 3대방향 제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과 조정식의원은 1일 국회에서 대선선거준비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대위 구성과 인선, 그리고 내일(2일)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대선 슬로건을 발표하며 20대 대선에서 ‘드림·원팀 통합’, ‘개방 플랫폼’, ‘미래 비전’이라는 3대 방향을 발표했다.

조정식은 “드림·원팀을 시작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합선대위를 구성하고자 국민통합에 대한 당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드림·원팀 선대위 구성한다”며 “민주당 드림·원팀 중심으로 민주개혁, 진보진영 결집하고 모든 국민 염원 담아 이재명 정부 출범의 맞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께 민주당의 문을 여는 ‘개방플랫폼 선대위’”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 비전에 함께하는 새로운 인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변화된 의제, 사회 곳곳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선대위로 구축해 나가겠다. 국민이 승리하는 대선 승리가 되도록 국민께 다가가는 길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선대위’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 정부를 계승하는 동시에 중도 확장과 의

연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은 선대위 구성방향에 대해서도 융합형·매머드·비전·현장이라는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융합형 선대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완전히 융합되는 선대위로 “함께 경쟁했던 경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고, 각 경선 후보 캠프 역시 선대위에 모두 하나 되는 용광로 선대위로 구성한다”며 “이 후보의 승리,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다.

거당적 구성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매머드 선대위로 캠프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한다. 특징으로는 국회의원별 ‘한 지역 일(1) 직능 담당제’를 시행해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중앙과 지역이 차별 없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포럼,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원로와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거당적 인선을 할 예정이다.

비전 선대위는 정책과 공약 통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한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포괄하고 아우르는 대선 공약을 만든다. 후보의 핵심 비전과 아젠다는 후보자 직속 기구로 편제되며 당의 주요

공약은 선대위 산하 각급 위원회에서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선대위는 ‘현장에 답이 있고, 표가 있다’는 각오로 현장 중심을 활동 전개하며 시도당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전국 시군구 풀뿌리 조직 등 전국 구석구석을 누리는 활동을 펼쳐 나간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선대위 인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차 인선안에는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인사에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우선 선대위 상임고문단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 당 상임고문단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자 직속 위원회에는 추미애 명예 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위원장, 이광재 미래경제위원회 의장, 김두관 균형발전위원회 등 7개 분야에 인선이 완료됐고, 신북지위원회와 안전사회위원회는 추후 인선키로 했다.

후보자 직할 기구로는 총괄특보단장에 안민석·정성호·이원욱 의원이, 외교특보단장 박노벽 전 대사, 국제통상특보단장 김현중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비서실장에 박홍근·최인호 의원,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의원, 공보단 수석대변인은 고용진·박찬대·오영훈·조승래 의원이 선임됐다.

대선을 진두진휘 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송영길 당대표를 중심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윤호중·김두관·박용진·이광재·설훈·변재일·김영주·우원식·홍영표·김상희·김진표·이상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상임선대위위원장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이 임명됐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이준석 “대선후보, 더 큰 힘 받아 선출돼야”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스타트  
“정권교체 위해 당원 투표참여” 호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경선 투표를 호소했다. /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경선 투표가 시작된 11월 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이 강한 열망을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당원들의 더 큰 힘을 받아 선출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9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시작됐다”며 “지난 전당대회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우리의 당원 기반은 우리의 당세가 확장됐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모두 동작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45.3%와 2차 경선에서의 49.93%의 투표율은 과거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 본경선에서는 60%를 넘어 7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 오늘 핸드폰을 열어 모바일 투표링크를 확인해달라.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 여러분의 투표 참여가 우리의 대선후보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하태경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관권 선거 논란’을 겨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주재 과장급 정책 공약 회의를 연 뒤 과장급 직원들에게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은 관권선거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9월 대선공약을 만들다가 적발돼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또 이런 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장동 게이트’도 엄중히 지켜보고 계시다 했는데, 수사기관이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못해 빈축을 사더니, 이제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마저도 대통령의 엄중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이상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천명한 선거준비에 대한 엄중대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국가는 일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부와 여가부 2개 부처에서 이런 일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나머지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 달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